

중국의 부실채권(NPL) 시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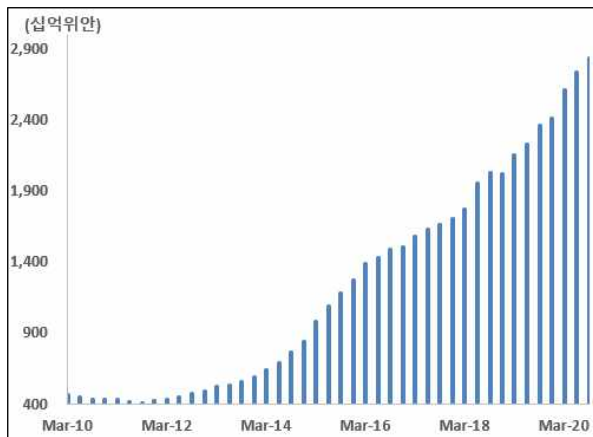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원호 (popiou@kdb.co.kr)

- ◆ 중국의 부실채권(NPL) 시장규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4대 AMC(Asset Management Company)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외자의 진출 장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
- ◆ 외자기업중 최초로 중국내 100% 지분의 현지 AMC를 세우고 영업을 개시한 Oaktree AMC의 향후 성과와 후속 진출 검토 기관들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

□ 중국의 부실채권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4대 AMC가 전체 부실채권 처리시장의 90% 이상을 점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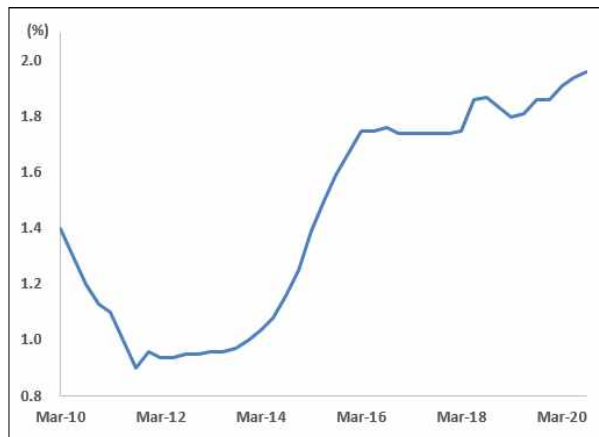
- 중국 상업은행의 NPL 규모는 '20.9월 기준 2.84조 위안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.8% 증가, '10.9월의 0.44조 위안과 비교하면 약 6.5배 규모로 확대
- 상업은행의 NPL 비율도 '20.9월 1.96%로 전년 동기의 1.86%보다 0.1%p 상승, '10.9월의 0.9%보다 1%p 이상 상승

중국 상업은행 NPL 규모



자료 : CEIC

중국 상업은행 NPL 비율 추이



자료 : CEIC

- 중국의 AMC는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회사로 전국성 AMC와 지방 AMC 등으로 구성
- 전국성 AMC는 재정부가 설립한 국유은행 부실채권 처리 전문회사로 4대 AMC(화융, 신달, 동방, 장성)라고도 칭함
- 지방 AMC는 지역내 부실자산 인수 및 처분을 위하여 성별로 세워진 AMC로 '20.6월 기준 약 56개가 영업중(이 중 38개 AMC는 성정부가 실제 지배주주)

- 4대 AMC의 시장 점유율이 90% 이상으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~3년내 점유율이 80%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(S&P Global Ratings)
 - 4대 AMC의 '19년말 기준 자산규모는 화용 1.7조 위안, 신달 1.5조 위안, 동방 1.1조 위안, 장성 0.6조 위안으로 지방 AMC(전체 자산합계 0.6조 위안) 등 타 AMC를 압도
 - 4대 AMC 모두 자본금이 300억 위안을 넘는 수준으로 대부분 100억 위안 미만인 지방 AMC와 자본금 규모면에서도 큰 차이

□ 중국정부가 금융시장 대외개방에 힘쓰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 AMC 시장에 진출중

- 중국정부는 '18년부터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등의 금융개방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며 외자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장려중
 - AMC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외자 지배주주 불허정책이 폐지(기존에는 20%가 최대 보유가능 지분)되면서 외국계의 AMC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상황
- '20.2월 미국의 부실채권 투자 전문회사인 Oaktree capital은 542만 달러의 자본금을 투입, 외국 금융기관 최초로 중국에 100% 지분의 자회사를 설립
 - 동사는 '13년 중국 4대 AMC의 하나인 신달 AMC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부실채권투자 시장에 진입
- 이밖에도 모건스탠리는 화용 AMC와('20.11월), KKR은 동방 AMC와('16.1월) 합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현지업무 참여
 - 외국인의 부실채권 거래는 '15년 5건에서 '19년 14건(11억 달러)으로 증가(PwC)

□ 중국 부실채권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과 중국정부의 대외 개방 움직임 등에 따른 중국 부실채권 시장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

- 풍부한 투자경험과 우수한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외자계 AMC의 중국시장 진출로 중국 부실채권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 기대(Dongxing Securities)
 - 현지 AMC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중국시장 내에서 일정 수준의 경험을 이미 축적해 온 첫 외자진출기업(Oaktree)의 영업실적과 시장내 역할 등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
-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제적 환경변화도 꾸준히 살펴보아야 할 요소
 - 미·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압박으로 외국자본의 중국진입 환경은 점진적 개선될 것으로 전망